



## 양계분야 제도개선 건의 사항 제출

이흥구 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은 지난 9일 신한국당 당사에서 전국농민단체와 이흥구 신한국당 대표와 가진 간담회 석상에서 양계분야의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제출하고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표1).

## 배합사료 가격인하에 대한 건의 및 회신

본회 및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이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농림부에 다음과 같이 배합사료 가격인하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 다 음 -

### 배합사료 가격 인하 건의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축산업은 수입개방과 생산비

표1. 양계분야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건의제목	건의내용
1. 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 법인이 상당수 있는 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법률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개인)는 누구나 축산용기자재(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4에 규정된 기자재를 구입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수입을 하는 경우는 농가가 직접 수입하였거나 리스자금으로 수입하였을 시는 영세율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되고 있음.</li> <li>* 농가(법인포함)가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4에 해당하는 축산용 기자재를 구입하였을 때는 구입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li> </ul>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의 경우는 법인전환에 대한 현물출자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으나 축산업의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li> <li>* 양계업의 경우 근자 경영의 합리화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농장이 늘고 있으나 토지, 건물 및 자동차 시설 등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코자 해도 양도세 등의 부담으로 이행이 어려운 실정므로 법인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음.</li> <li>*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에 축산업을 포함시켜 축산농가가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li> <li>*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축산업을 위한 상법상의 법인은 제외)에 농지(시설 등 축산업을 위한 고정자산은 제외)를 현물로 출자하는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조치되어 있음(조세감면 규제법 제52조 제4항)</li> </ul>
3. 외국인 인력 수입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계업은 3D업종에 해당되어 농장소요인력을 확보키 어려워 양계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차에 걸쳐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으나 축산업 분야에는 아직까지 조치된 바 없음.</li> <li>* 조속한 시일내 외국인 연수생을 양계농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li> </ul>
4. 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계규제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10,000수 이하를 20,000수 이하로 확대 적용 요망</li> </ul>
5. 수입 축산 기자재의 관세를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까지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축산기자재 전품목 및 부품에 대하여 현행 관세 8%를 잠정세율로 하여 무세조치 요망.</li> </ul>
6. 양계산물(계란, 계육) 가격이 연동 및 유통의 현대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계산물은 가격등락의 진폭이 심하여 생산자는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유통구조도 전 근대적으로 중간상인들의 농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산지가격이 오를 때는 소비자 가격은 즉각 오르지만 산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소비자 가격은 여간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가격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li> <li>* 예시: 지난번 산지 육계가격은 닭 1마리 (1.5kg 기준)에 600원(마리당 생산비는 1,800원)까지 폭락했어도 시장에서 생산 1마리 가격은 2,500~3,000원에 거래되었으며 튀김 닭 1마리에 8,000~9,000원에 거래되고 있음(지금까지 양계산물에 대하여는 가격지지 정책을 한 바가 한 번도 없이 양계인들이 소외의식을 갖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li> </ul>
7. 자조금 관계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계산물의 위생적인 공급으로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콜드체인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을 대폭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li> <li>* 현행 자조금 관계법령(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13조)에는 자조금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여건에서는 전양계인의 자율적인 납부를 기대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자조금 납부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li> </ul>

가중 등 대내외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경쟁력 향상은 차치하고 기반 자체 존립마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배합사료 업계에서는 국제 곡물가 상승이 있을 때 마다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시켜 양축가의 경영압박을 가중시켜왔습니다.

사료 업계에서는 국제 곡물가가 인상 될 때 마다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시켰다면 국제 곡물가가 하락 할 경우 배합사료 가격도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옥수수 국제 가격이 아래표와 같이 '94년 12월 톤당 120 \$선에서 지난 8월 214\$로 상승하였을 때 같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을 32%정도 인상하였습니다. 이제는 옥수수가격이 150\$수준으로 하락하였으므로 배합사료 가격도 두자리수 이상 인하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배합사료 가격인하를 건의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료가격인상률(%)	도착가(C&F, US\$/MT)
'94. 12	5	120
'95. 9	6	140
'96. 4	12	170
'96. 9	6	214
'96. 12	-	170
'97 상반기	-	150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준구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 배합사료 가격인하 건의에 대한 회신

- '96. 11. 11일 귀 협회에서 질의하신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협회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었다면 국제곡물가격 하락시 배합사료가격이 인하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귀 협회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의 경우 금년 7월 20일 톤당 250 \$(C&F)로 사상 최고가격을 형성할 때 사료제조업계는 금년도 하반기 까지의 소요물량을 평균 170 \$선에서 이미 구매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국제곡물시세는 최근 약세국면으로 전환하여 150\$ 내외로 하락하였고 현재 업계가 구매하고 있는것은 내년도 상반기 사용량을 구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 환율 등 제반여건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인하 수준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귀협회의 건의를 농협 및 사료제조업계에서 검토하도록 통보하였기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 농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본회를 비롯한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 3개 축산업 생산자 단체는 지난 9일 농림부 공고 제 1996-72호(96. 10. 28)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축사설치 등 농업용 시설의 설치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여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 다 음 -

가.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축산인 전체의 것인양 취급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축산인들의 축산시설 등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축산물도 식량이라는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의 소치라고 생각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 주곡증산의 필요성은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을 위한 농지전용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한다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다. 축산업은 3D업종으로서 근자 환경문제등 제반 악조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정부가 농지전용제도를 완화하여 축산인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제도를 강화하여 주곡 못지않은 축산물 생산활동과 경쟁력제고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임.

라.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축산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규정을 현행(신고제)대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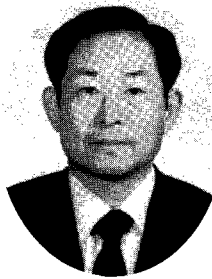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 최준구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 김교석 본회 부회장

농림부장관상 수상



◀김교석 부회장

본회 김교석 부회장이 지난 11일 제1회 농업인의날을 맞이하여 복지농촌건설과 선진농업을 이루기 위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개혁 추진에 앞장서 온 공을 인정받아 강은태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김교석 부회장은 지난 '55년부터 지금까지 우화농장을 경영하면서 실용계 공급으로 양계 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82년부터 본회 종계분과위원으로 활동, '83년 이천 축산업협동조합 이사 역임, '93년부터 현재까지 본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양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닭고기 살모넬라 검출 보도에 따른 수의과학연구소 입장 표명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는 지난 11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육계 생산자들이 모인 가운데 닭고기 살모넬라 검출 보도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재진 소장은 이번 보도자료 유출로 많은 육계농가들이 피해를 가져온데 대해 사과 표명을 하고 자료유출에 직접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석 가금과장이 살모넬라 방제를 위한 대책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생산자들은 보도 경위와 검출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살모넬라 방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농가에게 널리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제7회 전국 채란인 대회 개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와 전국 계우회연합회(회장 최준구)가 주최한 제7회 전국 채란인 대회가 지난 11월 5, 6일 양일간에



걸쳐 수안보 '한국콘도'에서 채란인 및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채란업의 당면문제로 떠오른 질병문제와 2중시세에 따른 유통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는데 2중시세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후장기 제도를 근절하는 방법과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각농장 팩스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그외 계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다음날에는 종이난좌 생산업체인 대도물산을 방문, 난좌생산의 전 공정을 견학하고 60원으로 오른 종이난좌가격 등 제반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제9회 전국 육계인 대회 개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주최하고 충북양계축산협동조합(조합장 강문달)이 후원한 제9회 전국 육계인대회가 지난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육



계인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최근 육계가격 하락 등 어려움에 처한 육계산업의 발전 방안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대회 식후 행사로 이년헌(충주 MBC 문화방송국) 사장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이상진(축산기술연구소) 박사가 "수출용 닭고기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 체계 및 동절기 육계사양 관리"를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이어 육계인의 밤 행사를 통해 육계인들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97한국양계박람회 기자간담회 개최 박람회 개최 배경 설명

본회는 지난 14일 한국종합전시장 본관 MVP룸에서 축산관련전문지 기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97한국양계박람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7년 6월 24일-27일 4일간에 걸쳐 개최될 '97한국양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역대 양계박람회 개최현황(표 참조)



을 설명하고 박람회 개최 배경과 계획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표 역대 양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 분	1994년 (제1회)	1994년 (제2회)	1994년 (제3회)
일 시	1991. 10. 10-21 (3일간)	1993. 8. 19-21 (3일간)	1995. 8. 23-26 (4일간)
장 소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	한국종합전시장본관3층 대성양관 5,6전시실	한국종합전시장본관1층 대성양관 1,2,3전시실
전시장규모	3,006㎡ (911평)	7,776㎡ (2,356평)	7,776㎡ (2,356평)
참가업체수	77개	135개	138개
부스설치수	156개	327개	338개
전시품목수	97종	389종	395종
참관객수	30,200명	91,827명	98,000명

**'96 학교 조리실습 실시**

본회가 달걀, 닭고기 소비 홍보의 일환으로 펼친 금년도 학교 조리실습이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5개 대학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습내용으로는 각 학교별로 달걀, 닭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한 영양강의와 요리강습이 담당교사와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고 실습 후 본회에서 준비한 달걀, 닭고기 요리책자 등



홍보물이 배부되었다.

**표 학교조리실습 실시 내용**

	학교명	실습기간	실습인원	지원물량	비고
1	한양여자전문대	10.9~11	360	닭 240수, 달걀 480개	실시중
2	경기전문대	10.17~19	320	닭 210수, 달걀 320개	
3	고려대병설전문대	10.23~25	640	닭 426수, 달걀 640개	
4	명지대	10.29~30	240	닭 160수, 달걀 240개	
5	위례상고	11.18~21	1,480	닭 740수	
계			3,040	닭 1,766수, 달걀 1,680개	

**전국난가조절위원 합동회의 개최**

**난가 전국 통합 움직임**

본회는 지난 20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전국난가조절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난가조절위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경기지역과 지방 난가를 일괄적으로 통합시킨다는데 합의하였는데 주요 골자로는 난가변동시 서울과 지방의 변동 일자를 2일 이내로 할 것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도 서울과 지방의 폭이 3원 이내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각각 고시되던 전국 난가

가 일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난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DC폭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이 모임은 앞으로 매월 채란분과위원회와 전국계우회연합회 개최일 1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 전국적 질병 만연

11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질병이 만연되고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에서 가금티푸스가盛行하고 있어 생산성이 10~15%정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병아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상승세에 있는 병아리 가격의 인상문제를 놓고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망에서는 육계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경기와 아울러 불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산란계의 경우 금년도 입식된 산란종계가 적정수수를 상당수 초과되어 후반기 산란실용계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사업 추진 협의회 개최

#### 분야별 추진계획 검토

본회는 지난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사업 추진협의회(위원장 오봉국)를 추진위원들과 분야별 연구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97년도에 제3차년 계획이 종결됨에 따라 지금까지 연구해온 고품질육용화 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 미등록 부화장 및 종계장 고발센터 안내

- 대 상 : ○미등록 부화장 경영자  
○미등록 종계장 경영자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 초과 종계 보유자  
○불량종란 또는 불량초생추 생산·유통하는 자
- 방 법 : 서면 또는 전화(신분 보장)
- 조 치 : ○접수후 사실확인 위법사실 확인되면 당국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  
○결과 월간양계 및 양계관련 매체에 공표
- 접 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 (02)588-7651, Fax : 588-7655